

“다문화 가족 다 모여라”...해남서 19일 한마음대회

두성재단 주최...해남우של체육관서 전통놀이체험 등 즐길거리 풍성 소통·화합과 한국적응 돕기 일한



사회복지법인 두성재단이 지역 다문화 가족들의 친목도모 활성화로 지역사회 소속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한마음대회를 개최한다.

두성재단(대표이사 정영희)해남가족센터는 오는 19일 오후 1시 해남우של체육관에서 ‘제16회 해남군 다문화가족 한마음대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한마음대회는 다문화 전통놀이체험, 공예체험, 해남다문화예술동아리플루트 공연,유공표창,문화공연 및 가족레크리에이션 대회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다문화 가족의 인식개선을 위한 장을 마련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결혼 이민자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서다.

또한 대회를 통해 다문화 가족들 간 정보 교류의 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두성재단은 매해 다문화가족한마음대회를 열어 다문화 가족과 소통·화합 도모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해남군 관내 500명의 다문화가족 부모, 자녀, 시부모와 친정 부모들까지 참여해 친목을 다지고 소통하는 축제의 장이 됐다.

사회복지법인 두성재단은 1988년 고(故) 승정 이정일 전 국회의원이 문화, 교육, 의료 여건 등에서 고향 해남이 낡아진 점을 보고 1988년 4월 지역민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거액의 사재를 들여 설립한 복지재단으로 해남과 진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복지시설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재단은 현재 해남종합사회복지관, 해남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복지어린이집, 진도지역자활센터, 재가장기요양기관, 프로젝트사업단 등을 통해 광주·전남 최대 규모의 사회복지법인으로 성장하고 있다.

재단은 한마음대회 개최 외에도 설립 초기부터 두성봉사단을 결성해 지역민들

의 수요에 따라 집수리, 도배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홀몸노인들의 균형 잡힌 식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매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밑반찬을 배달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폭염 속에서도 온정을 나누기 위해 김장김치 500포기를 직접 만들어 소외이웃을 살핀 바 있다. 두성재단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다문화가족을 향한 아낌없는 지원·관리에 매진할 계획이다.

정영희 사회복지법인 두성재단 대표이사는 “여러 다문화 가족들의 참여로 이웃간의 정을 나누고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대회를 열게 됐다. 행사를 통해 이웃간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며 “세계 모두가 지구촌 가족이 돼가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다문화가족을 위한 복지 지원책들을 지속 발굴 편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진용 기자**

신안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내일부터 31일까지 납부

전라남도 신안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만3812건, 약 1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과세 대상은 신안군에 소재한 주택, 건축물, 선박이며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사실상 해당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9월 2회로 분할 고지되나 납부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일 경우 7월에 연납으로 전액 고지된다.

2021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 특례가 2026년 추가 연장되면서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외에도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모바일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지방세 ARS 간편납부(142211)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신안군 민원봉사과 재산세 담당자(061-240-8308)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신안=홍일갑 기자

하반기 평생학습 수강생 모집 강진군, 내일부터 선착순

전라남도 강진군 평생학습센터가 오는 16일부터 2025년 하반기 평생학습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한다.

14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민 대상 설문 및 수요 조사를 거쳐 올해 하반기 42개 강좌를 개설했다. 운영 기간도 기존 4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했다.

개설 강좌는 건강, 취미, 직업 능력 등 3개 분야이다. 건강 분야는 △요가 △필라테스(기구, 바레) △라인댄스 △쑤바댄스 △발레 △생활댄스 △에어로빅 등이다. 취미 분야는 △생활요리 △서예(한글, 한문) △프랑스자수 △어반스케치 △생활 도자기 △양말목공예 △드럼 △캘리그래피 △통기타 △목공예△하모니카 △홈베이킹 △토탈재봉틀 등이다.

하반기에는 직업 능력 과정을 확대해 원예복지지도사(3급), 정리수납전문가(2급), 심리상담사(2급), 바리스타(2급) 자격증반을 마련했다.

16일부터 22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건강·취미(서화 등) 교육(22강좌)은 16일부터 접수를 받고 악기·자격증 등 교육(22강좌)은 17일부터 모집한다.

강진군 교육정보 홈페이지 또는 강진군 평생학습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강의는 8월4일부터 순차적으로 개강해 12월 말까지 진행된다.

이와 함께 평생학습 강좌 수강이 어려운 면민을 대상으로 ‘면’으로 찾아가는 배달강좌도 운영할 계획이다. 7인 이상 면민이 모여 학습팀을 구성해 수강 신청 기간에 듣고 싶은 강좌를 신청하면, 강사가 교육 장소로 직접 찾아가 강의를 진행한다.

평생학습 수강 신청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 홈페이지(www.gangjin.go.kr) 고시·공고 또는 교육정보 홈페이지(평생학습-강좌신청)를 참고하거나 총무과 교육교류팀(061-430-3725)에 문의하면 된다. **강진=김윤복 기자**

무안경찰, 교통 기초질서 확립 현장 계도 활동

폭염 대응 읍시가지 살수차 운행 강진군, 주요 도로 열섬 완화

전라남도 강진군이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살수차 운영을 본격 실시했다.

14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9월 말까지 폭염 특보 발효 때 도로 살수작업을 집중 실시, 체감온도 저감과 열섬 완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올해 강진군이 투입하는 살수차는 총 2대로 강진읍 주요도로 살수를 위한 15톤과 전통시장 등 이면도로 살수를 위한 5톤용 살수차를 활용한다.

강진군은 살수차 운용 외에도 무더위 쉼터 운영 확대, 그늘막, 폭염 대응 안전 재난문자 홍보, 재난도우미 활동 강화 등 입체적 폭염 대응체계를 추진중이다.

강진=김윤복 기자

장마철 ‘고추 병해충 주의’ 당부 진도군, 현장 중심 지도 강화

전라남도 진도군은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해 발생이 우려되는 고추 병해충에 대한 농가들의 적극적인 예방을 당부했다고 14일 밝혔다.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은 고추의 주요 병해충인 탄저병, 역병, 바이러스병 등의 발생을 급증시키는 주범으로 탄저병, 역병은 장마철에 급속도로 확산하는 특징을 가졌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는 토양전염병, 바이러스의 조기 발견을 위해 현장 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진단키트를 활용해 토마토반점무늬바이러스(TSWV), 오이모자이크바이러스(CMV), 탄저병, 시들음병, 풋마름병 등 주요 병해충 감염 여부를 5분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농업인이 요청하면 전문 지도사가 농가를 직접 방문해 검사를 진행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작물 관리 요령과 맞춤형 기술을 함께 지도한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고추 병해충 예방을 위해서는 △뿌리를 비닐로 덮기(멀칭) 등 고랑 포장 관리 △배수로 정비 △장마기 전후 보호용 살균제 살포 등이 중요하다. 이미 병이 발생했다면 병든 과실을 제거하고 작용기작이 다른 치료용 살균제를 7~10일 간격으로 교호 살포해야 한다. **진도=백재현 기자**

전라남도 무안경찰서가 지난 10일 관내 주요 교차로에서 교통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14일 무안경찰에 따르면 이번 계도활동은 단순 중심이 아닌 자발적인 교통 준수 의식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교통량이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 주요 교차로를 중심으로 자체 제작한 치안 소식지와 물티슈 등 홍보물을 활용해 기초질서 준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운전자들에게 자연스럽게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무안경찰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통해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시민 인식을 제고하고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정성일 무안경찰서장은 “기초질서 준수는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며 작은 교통법규 위반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소한 위반이라도 교통안전에 해치고 사회적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연 기자**



지난 10일 무안경찰이 관내 주요 교차로 일원에서 교통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계도활동을 펼쳤다. **무안군 제공**

목포시, 공영버스 친절·안전 운행 캠페인

전라남도 목포시는 지난 10일 버스터미널 교차로 일원에서 ‘공영버스 친절·안전 운행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올해 새롭게 출범한 목포시 직영 공영버스와 위탁공영 운영사인 목포비티에스(BTS) 운수종사자, 시 관계 공무원 등 40여명이 함께 참여해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영버스 이용 활성화 홍보 △‘친절·안전·봉사’ 문구가 적힌 피켓, 어깨띠 및 현수막을 통한 캠페인 △법규 준수 및 안전운행을 다짐하는 구호 제창 등을 통해 공영버스 서비스 향상과 안전 운행 실천을 약속했다.

목포시는 시민이 보다 쾌적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정보안내



지난 10일 목포시가 버스터미널 교차로 일원에서 ‘공영버스 친절·안전 운행 캠페인’을 펼쳤다. **목포시 제공**

단말기(BIT) 확대,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 버스정류장 정비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공영버스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는 운수종사자의 의식 개선이 중요하다”며 “새롭게 시작된 공영버스가 시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친절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